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활성화 속도

정부 공모 선정...240억 투입 스마트 도시 조성
유럽마을 테마파크 투자협약 등 관광 거점 부상

해남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1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솔라시도 기업도시 활성화에 속도가 붙었다. 3일 해남군에 따르면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추진될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앞으로 3년간 최대 24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미래도시 표준, 솔라시도'를 테마로 전기차 공유서비스와 공유차량 자율주차 서비스, 자율주행 셔틀버스, 솔라시도 메타버스 구현, 태양광 기반 압축쓰레기 처리 시설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2,090만여㎡ 규모의 서남권 최대의 도시개발 사업인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지난 2005년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이래 십 수년간 사업추진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가 전남도 블루이코노미의 일환인 전남형 스마트블루시티 개발로 활기를 찾고 있다. 지난 2020년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국내최대규모 159만여㎡ 면적, 98MW 규모의 재생에너지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된데 이어 2021년 솔라시도CC가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더츠코과 5,700억원 규모의 유럽마을 테마파크 조성 투자협약을 체결, 49만 5,000㎡ 규모로 전원주택, 호텔, 쇼핑몰 등을 포함하는 복합 휴양시설 단지를 조성하는 등 서남권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에는 정원도시, 태양에너지도시, 스마트도시의 도시비전을 가지고, 일자리·관광·주거·교육·의료 등 자족기능을 갖춘 스마트시티 조성을 목표로 산업단지 전체의 전기를 100%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전용시범단지 조성을 비롯해서 복합문화공간인 50만여㎡ 규모의 산이정원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이번 지역거점 스마트시티로 선정이 기업도시의 비전을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새로운 청신호

가 되고 있다"며 "지역 특화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해 새로운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신도시형 표준모델을 제시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은 전국 도시의 스마트화를 위해 지역거점을 조성해 도시공간구조를 재설계하고, 도시서비스의 스마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민간기업이 함께 스마트 인프라와 서비스 구축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민간기업 참여와 혁신기술 도입을 통해 중소도시형 스마트시티 모델 정립 및 스마트시티 기술 확산으로 최적의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거점화해 인근 지역에 확산하게 된다. /해남=박병태 기자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강진 청자를 소개·판매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 청자, 온라인 유통망 구축 성과

지난해 판매액 5억5천만원 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된 강진 청자 축제기간동안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및 MBC 미디어 커머스를 연계 판매하고, 10월 한 달간 강진청자 판매장과 강진청자물(www.gj-celadon.com)에 입점 제품을 정가의 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다. 그 결과 2021년 연간 청자 판매액은 관요 및 개인요 판매액을 합쳐 5억 5,000여만 원으로 예년보다 약 3억 5,000만 원가량 증가했다.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데에는 온비드뿐만 아니라 청자 축제와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 유통망 구축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이다. /강진=한태선 기자



임인년 희망, 범 내려온다 강진군 성전면 농촌체험마을인 '청자골달마지마을' 호령이 조형물 위로 상서로운 기운을 가득 담은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다. /강진군 제공

서해해경, '해상 앰블런스' 역할 톡톡

지난해 응급환자 934명 이송...골든타임 사수 최선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해상 앰블런스'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의료 사각지대인 해상과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3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신안군 고이도에서 가슴통증을 호소하는 응급환자 2명을 경비함정을 이용해 육상으로 이송했다. 또 같은날 완도군 냇도에서는 머리와 턱을 다친 응급환자 1명을 경비함정에 태워 육상으로 이송했다. 서해해경청의 응급환자 이송 현황을 보

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경비함정과 헬기 등으로 응급환자 총 2,608명을 이송했다. 하루 평균 2.4명이다. 지난해에는 934명(12월 31일 오전 10시 기준)을 이송, 예년에 비해 134명(16.8%) 증가했다. 응급환자 이송은 주로 많은 섬이 있는 지역에서 이뤄졌다. 서해해경청 소속순산·부안·목포·완도

·여수해양경찰서 중 신안군을 관할하는 목포서에서 421명(45.1%), 완도군을 관할하는 완도서에서 231명(24.7%)의 응급환자를 이송했다. 김종욱 청장은 "서해해경청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경비함정과 헬기 등을 신속히 투입해 육상으로 이송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확립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김동균 기자

완도, '고령자 복지 주택' 대상지 확정

완도군이 최근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고령자 복지 주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3일 완도군에 따르면 고령자 복지 주택은 고령자의 주거 복지를 위해 임대 주택과 돌봄을 제공하는 공공 임대 주택이다. 국토부에서는 지자체로부터 임대 주택 규모와 시설 설치·운영 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 제안서를 받아 현장 조사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사업은 완도군과 LH가 공동 시행하며, 사업비는 총 200억 원이 투입된다. 주택은 103호를 공급하고, 복지시설은 연면적 1,20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다. 사업은 오는 2월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2023년 1월 공사 착공, 2025년 1월 완공될 예정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최규욱 기자

목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유지

목포시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사무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수행방식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으로 유지한다고 3일 밝혔다. 협의회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매뉴얼'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해 8차례 논의를 거쳤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실태조사 용역 결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친 뒤 공공성,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를 진행했다. 한편, 협의회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3단계 정책으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8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목포=박승경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진도교육청, J-Arang청소년예술단 공연 성료

진도교육지원청은 최근 진도지역 학생들의 전문문화예술전승과 발전을 위해 개최한 J-Arang청소년예술단 공연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국립남도국악원의 지원으로, 전문적인 시설이 갖춰진 국립남도국악원 공연장에서 1부 국악오케스트라와 2부 국악뮤지컬로 진행됐다. 이번 공연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런 큰 무대에 부모님들을 모시고 공연할 수 있어서 너무 꿈만 같고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문포 교육장은 "전남에서 유일한 청소년국악예술단체인 J-Arang청소년예술단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병호 기자



강진마량초, 경로당에 겨울용품 기탁

강진군 마량면은 최근 마량초등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이 최근 관내 경로당에 전달해달라며 지팡이와 핫팩, 귀마개 등 겨울용품 기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마량초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으로 모아 추진해 더 의미가 크다. 기탁된 물품은 마량면에서 복지회관 및 각 마을 경로당에 방문해 학생들의 고운 마음과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마량초 한 교사는 "학생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기본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학생들의 고운 마음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현성 마량면장은 "학생들이 나눔과 봉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너무 기쁘고 대견스럽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연성 임채성 대표, 방한복 87벌 기증

무안군은 최근 ㈜연성 임채성 대표가 환경미화원에게 전달해달라며 1,300만 원 상당의 방한복 87벌을 기증했다고 3일 밝혔다. 임채성 대표는 평소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정직한 기업가로 알려져 있으며, 이웃 돕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지역사회 의 귀감이 되고 있다. 임 대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깨끗한 무안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추운 겨울에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일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방한복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산 군수는 "고생하는 환경미화원들을 위해 소중한 기증해주신 임채성 대표님께 깊은 감사사를 드립니다." /무안=박주현 기자